

학회에서 바라보는 코리아메드

인하의대 정문현

KoreaMed 필요성

- 1) 국내 의료인의 수와 관련 논문 증가
- 2) 국내 학회와 학회지 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의학 학술지와 출판사 증가.
대학이나 병원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국내 잡지의 증가
- 3) 특정 분야 검색의 필요성

KoreaMed 필요한가?

- 1) 양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원함.
- 2) 연구비나 업적 평가에서 SCI, Medline 등재 여부나 SCI impact score에 따라 가중 평가하는
경향으로 인해 국내 잡지로 투고되는 원고 수 감소.
기초 의학 학회지의 통합과 영문 잡지로 변환 : 장기적으로 볼 때 Medline 등재 가능.
- 3) 자격 시험이나 승진에 필요해서 발간한 논문 : 최소한의 논문 수를 유지하는데 기여.
논문 수준 유지가 어려움. 국내 논문의 질 평가가 없음.
- 4) 참고문헌 수 제한

의학논문 검색에서 변화

검색 방법 : 인쇄물 -> modem 또는 CD (Ovid, Silverplatter) & LAN --> internet (초록 -> 전문)

초기의 초록 제공 수준에서 전문 (full text) 제공으로 변화. 유료화

Medline 등재 의학지의 전문 수록 (**PubMed Central** <http://www.pubmedcentral.nih.gov>).

: 엄격한 수준 유지의 어려움

출판사 수입의 감소

Medline 비등재 잡지에 수록된 영문 논문의 개별 등재 (Scientific World)

경제적 요인

KoreaMed을 전담할 수 있는 회사를 유지할 정도의 재정

국내 의학 논문 검색의 경제적 가치

유료화